

# 2011년 대한민국 농산업 트렌드-FAST!



민승호

긴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해마다 늘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는 봄이지만, 저는 2011년의 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20세기의 관성이 이어지는 전환기였다면, 2011년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싹이 움트는 생명과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21세기의 역동적 변화 몇 가지를 FAST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 FAST-FTA 갈등과 도전

21세기 벽두(劈頭)에서 만나는 농업계의 화두(話頭)는 역시 FTA입니다. 2010년 12월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갈등 표출이 예상됩니다. FTA의 비준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생산구조의 재편 및 구조조정 논의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며, 농산업 부문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뭇거릴 틈도 없이 FTA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동안, 농업계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감소 → 가격 하락 → 생산 감소 → 농업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FTA를 막을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FTA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FTA는 막연한 불안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의 문제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FTA 시대를 맞이한 한국농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FTA라는 거센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지, 오히려 그 물결을 이용하여 '세계'라는 넓은 대양으로 뻗어 나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FAST - A(Agribusiness) 강소농(強小農)**

그동안 한국농업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지만, 아무리 규모를 늘려도 모든 농가에게 충분한 농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1세기 한국농업의 주력은 여전히 가족농일 것이며,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가족농 기반의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

소농(強小農)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과 '농업인들 스스로 쉽 없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업자들이 사주기만 바라던 과거의 방법에 매달려서는 곤란합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가공·유통·마케팅에 이르는 총체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농업경영체를 양성하여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산업으로서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적어도 농가소득 10%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농업은 지식기반산업이자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던 1차 산업인 농업에 0.5만큼만 변화를 주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통 사업영역(생산·가공·유통)에 0.5를 더한다는 것은 산업간 융복합(IT·BT)과 소프트 요소(예술·문화·감성)의 결합을 통해 농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일반적 통념을 초월하여 새롭게 농업의 '업(業)의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산물 = 먹을거리(eat)'라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즐길거리(entertainment)'를 결합하여 '먹고 즐기는 산업(eatertain



**‘생각하는 물음표’의 창의력과 ‘행동하는 느낌표’의 도전정신을 하나로 모아 간다면,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ment)’)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식품, 제약, 유통, 관광, 레저를 포함한 관련 산업은 물론, 예술, 문화분야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수록 농업 분야에서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FAST-S(Smart Farm) 농업과 소셜 네트워크의 만남**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인맥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합니다. 웹(web) 상에서 같은 취향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는 카페·동호회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는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든 SNS는 개인의 생활 패

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강한 농업(強小農)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IT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면, 농업인이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여 홍보·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농촌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 북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를 늘리는 것이 전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디지털 농업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가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보급입니다. IPTV란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양방향 TV 서비스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TV 가입자는 벌써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IPTV를 이용하면 리모콘 조작만으로도 TV 속 상품의 검색·구매가 가능하고, 농산물의 생산이력·인증·생산지역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VOD(Video on demand) 형태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인 T-커머스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에 440억수준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2012년에는 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 FAST - T(Transition) 젊어지는 농촌

그동안 농촌은 사람들이 떠나는 쓸쓸한 공간으로 여겨 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귀농(歸農)!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농가구의 수도 점점 늘어나서, 2002년에는 연간 800가구에도 이르지 않던 것이 2009년 한 해에만 4천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귀농인의 76%는 50대 이하의 젊은 층입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도시에서 치열한 삶을 벗어 던지고, 성공적인 '인생 2모작'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농촌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취업 한파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농촌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20~30대 청년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마인드와 함께 신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귀농 농가, 이른바 리팜족(Re-farm)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19세 미만 농가 인구의 절반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구성될 전망이고, 농촌 여성인구의 6.2%는 다문화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의한 갈등, 자녀교육과 인종 차별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사회가 슬기롭게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으면, 오히려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으로 이주하는 외국 여성의 70% 이상은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로서 본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극복한다면, 여성리더로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 맺음말 - 인테리뱅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격변하는 21세기의 시대 흐름 속에서, 한국농업의 운명을 좌우할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농촌진흥청이 올해 1월부터 매주 발행하기 시작한 『RDA 인테리뱅』 창간호인 'FAST & SLOW : 창조적 공존'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인테리뱅(?)이란?** 물음표와 느낌표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의 문장부호로서, 호기심과 놀라움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며, 사소한 질문에서 기발한 해답을 찾는 발상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한국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조적 역발상과 함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물음표'의 창의력과 '행동하는 느낌표'의 도전정신을 하나로 모아 간다면,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인테리뱅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㉞